

영암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도입

1000원으로 버스 이용

2개 운수회사와 협약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영암군이 내년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도입한다.

13일 영암군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버스 승차구간과 상관없이 탑승객이 1000원만 내면 버스 이용이 가능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인 가정 '1000원 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지난 8일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남부교통, ㈜영암교통과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단일요금제는 민선 6기 출범 당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동평 영암군수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영암군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재원부담 가중과 운영상 문제점 등

일시 : 2016. 11. 8. (화) 10:00 장소 : 영암군청 남산실



전동평(가운데) 영암군수는 최근 영암군청 남산실에서 지역 버스운행 업체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을 체결했다. <영암군 제공>

을 이유로 준공영제를 포기하는 대신 단일요금제를 채택했다.

영암군에서 현재 농어촌 버스를 운행중인 남부교통과 영암교통 등 2개 운수회사는 보유 버스 28대로 하루 68개 노선을 운

행하고 있으나, 1개 노선을 제외하곤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수익노선은 영암→목포간(요금 4400원)이 유일하며, 나머지 67개 노선은 비수익 노선과 적자노선으로 준공영제 도

입 시에는 연간 40억원의 예산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단일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 재정보조금(연 10억 2000여만원) 외에 연간 6억4000만원의 예산만 추가하면 돼 군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버스 이용자의 교통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암군과 양 운수회사는 내년 시행에 앞서 남은 2개월 동안 군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서는 한편 버스 운수중사자에 대한 자체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군민께 약속한 단일요금제를 드디어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교통행정 서비스 질 향상과 교통편의 증진으로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선진 대중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1000원 버스)는 전남도내에서 곡성군에 이어 두 번째다.

/영암=전봉원기자 jbh

농어촌공사 강진지사 내고향 물해설 행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는 "최근 강진군 병영면 성남리 병영초등학교에서 학생 및 선생님과 직원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고향 물해설 행사(사진)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내 고향 물 해설 행사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농업 수리시설과 마을 및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물의 역사와 문화, 환경적인 가치 및 수리시설의 중요성을 알리는 위한 것이다.

최광성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는 "매년 내 고향의 맑은 물 보전으로 쾌적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세대 청소년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내 고향 물 해설가 초청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옛 장흥교도소에 화훼·아열대 과수 단지

장흥군 임대계약...기획재정부 상대 매수도 나서

장흥군이 옛 장흥교도소 부지 내에 대규모 화훼·아열대 과수 시범포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13일 장흥군에 따르면 옛 장흥교도소 부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와 지난 5월 임대계약을 맺은 데 이어 소유권을 지닌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매수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장흥군은 교도소부지 10만548㎡(3만여평)를 연차별 단계적으로 매입하고, 이 가운데 수형자의 노역장으로 쓰였던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시범포 단지는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열대 작물인 '레드향' 등 과수나무를 비롯한 국화 등 시가지 환경조성용 화훼단지도 꾸밀 방침이다.

장흥군은 이에 앞서 가사문학의 분향

이자 장흥출신 문인들인 이정준, 송기숙, 한승원, 이승우 등 현대문학의 유명작가 작품이 세계 12개국에 영화화한 문학의 고장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지난 5월 옛 장흥교도소 부지에 문화관광체육부에 전남도와 공동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을 건립후보지로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부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둘러싸고 각 지역간 과열공방이 거세지자 후보지 선정을 보류한 상태다.

장흥군은 당초에 그동안 옛 장흥교도소 부지를 매입해 감옥호물, 교정역사 박물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을 갖춘 법교유 주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한편 1975년 4월 장흥읍 원도리 200번지 일원에 개소한 옛 장흥교도소는 39년 만인 지난 2014년 8월 용산면 어산리에 신장사를 마련해 이전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전국 첫 한예종 분교 강진에 개교

문화예술 인력 양성 '강진아트센터' 직영 협약

음악도시 강진군에 북방문화공간인 강진오감통과 아트홀에 이어 지역 문화예술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강진아트센터'가 문을 열었다.

강진군과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봉렬)는 최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문화예술 창작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개소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진아트센터(구 강진도예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면에 있는 강진군 소유의 강진도예학교 건물과 부지를 활용한 강진아트센터는 한예종이 직영한다.

이번 협약은 강진군 대구면에 있는 옛 강진도예학교를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창작·보급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 강진군의 제안과 우수한 문화예술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려는 한예종간 노력이 이뤄낸 결과물이다.

강진군은 아트센터를 통해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지역 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연간 400명의 한예종 대학생들이 강진군 현장학습을 통해 강진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물론 장기교육생들의 식자재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강진원 강진군수가 최근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완료된 강진군 대구면 남호마을 가정용 방문해 주민들과 수돗물 공급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대구면 남호마을 광역상수도 개통

강진군 대구면 남호마을에 광역상수도가 개통됐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 5월 시작된 대구면 남호마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최근 완료돼 60가구 114명의 주민이 양질의 상수도 혜택을 받게 됐다. 남호마을은 그동안 개인 지하수를 이용해 식수를 해결해야 하는 미급수지역으로, 지하수가 고갈되고 주변 농경지 오염 등으로 수질 오염이 악화돼 오랫동안 식수난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사업비 2억8600만원을 투입해 광역상수도 사업을 마무리 했으며, 사회보

장단체인 국제로타리(탐진로타리 회장 김윤석)는 2000만원 상당의 상수도물탱크 설치를 지원했다.

채잔호 남호마을이장은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상수도를 공급 받게 돼 정말 기쁘다. 이제 마음놓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은 아직도 남호마을처럼 개인 지하수나 계곡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이 많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급수 마을에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장흥 대덕읍 '마을 도우미' 운영 호응

담당 공무원·이장 지정 주민들 각종 민원 해결

장흥군 대덕읍(읍장 김장용)은 "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비롯한 불편한 점과 궁금한 사항 등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을 도우미 시책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덕읍은 이를 위해 각 마을회관에 도우미 안내표찰을 부착하고 마을 이장과 함께 담당 공무원의 사진과 연락처도 게재했다.

주민들이 담당공무원과 이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필요한 안내 및 조치를 받

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담당공무원과 이장은 지역 주민의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업무 직원과 연계해 빠르고 정확하게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장용 대덕읍장은 "정보가 부족하거나 행정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워 행정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흥군 농수산물 판매 활성화 주민 SNS 운영교육

장흥군은 "14일과 21일, 28일 세 차례 동안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운영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각 5일 일정으로 편성된 이번 교육은 SNS를 통해 개인 사업체나 지역 농수산물을 홍보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교육은 모바일 기기의 최근 트렌드와

SNS 마케팅 우수사례, SNS 운용방법에 대해 이뤄진다.

14일과 21일 개최되는 SNS 교육은 신규 사용자를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의 사용 방법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인터넷 쇼핑물 운영을 내용으로 짜여졌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총무과(061-860-0305)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4,5,6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팻섬, 비금도내에 있는 섬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 매매-7억, 분할매매 가능

보성, 복내면 임야

- 보성군 복내면 계산리 산87번지 외 5필지(81-1,4,5,6,7)
- 13만평중 1/5지분, 26000평
- 야산, 전기시설, 임로개설
- 매매-2억6000만원

화순, 동북면 임야

- 동북면 연월리 산195-2,7,8번지 29381평, 2차선 국도접합
- 번지내 1층건물 포함 (53평)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9억, 감정가 - 9억

북구, 청풍동 임야

- 광주 북구 청풍동 산272-1 2339평, 지역복지지역
- 신촌마을 북서쪽에 위치
- 장기투자 최적
- 매매- 3500만원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동구 수기동 23-2
- 20층중 9층, 32평, 코너
- 전체울리, 전망최고
- 주거겸 사무실, 시세 1억4000만원
- 매매 - 1억원

싸고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회사직거래 / H. 010-3605-5000

나주, 공산면 근린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매매 - 5000만원

무안, 일로읍 잡종지

-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323-3
- 잡종지 1081평
- 옆 국유지 약700평 있음
- 공장등 용도 다양
- 매매 - 2억2000만원

장성, 동화면 전원주택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7680만원

구례, 산동면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4층건물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58개
- 리모델링 준비중 (4억이상)
- 매매 - 협의, 감정14억

금호동, 근린상가

- 서구 금호동 243-6
- 서광병원 맞은편 코너, 130평
- 7층 건물중 701호, 7층 전체
- 보5천만원에 월250만 임대 가
- 매매 - 6억(조정가), 감정7억